

# 부모 양육태도가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권치순<sup>1\*</sup> · 이초록<sup>2</sup>

<sup>1</sup>서울교육대학교 · <sup>2</sup>서울사당초등학교

## The Effects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o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s Self-Esteem

Chi-Soon Kwon<sup>1\*</sup> · Cho-Rok Yi<sup>2</sup>

<sup>1</sup>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up>2</sup>Seoul Sadang Elementary School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arents' nurturing attitude on the children's self-este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elf-esteem of target childre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GATE) and nongifted children with parents' nurturing attitude. The targets of this study are total 656 children in total.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self-esteem of target children of GATE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hat of nongifted children in overall, social, domestic and school life.

Second, the nurturing attitude of parents felt by the target children of GATE is, from both father and mother, more affectionate, autonomous, achievement-oriented and rational. The parents of target children of GATE are more free in communication and fathers are aggressively in education; compared to parents of nongifted children, they put more importance on the course of achievement and help their children's achievement with actual way compared to the parents of nongifted children.

Third, the relevance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s' nurturing attitude is different in sub-areas. The self-esteem at home is the most relevant with parents' nurturing attitude, and the self-esteem at school is more affected by other factors than by the parents' nurturing attitude.

**Key words** : gifted childre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arents, self-esteem, nurturing attitude

## I. 서 론

고도의 정보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력과 미래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창의적인 고급 두뇌를 갖춘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고시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법제처, 2000, 2002). 영재교육에서는 영재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정한 미래의 영재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알맞

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들의 수준과 적성에 알맞게 지도하는 특수한 교육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과연 누가 영재인가? 영재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영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관별할 것인가? 영재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영재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영재지도 후 교육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영재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등과 같은 과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영재교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 교신저자 : 권치순(cskwon@snu.ac.kr)  
2011. 12. 15(접수) 2011. 12. 25(1심통과) 2011. 12. 31(최종통과)

영재교육의 과제들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에 진정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영재의 판별과 선발의 원리 및 절차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다단계 평가를 통하여 뛰어난 영재성, 즉 무한한 잠재 능력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여 왔다(서혜애, 2002; 최호성 외, 2000; 이재신, 1996; 조석희, 1996; 박문태 외, 1986; Renzulli, 1978).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학생들의 서류(학교장 추천서 등) 심사, 학업 성취도 검사,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영재성 검사, 일반 창의성 검사, 과학 창의성 검사, 산출물 평가, 심층 면접, 영재 캠프, 토론, 관찰 추천 등의 방법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왔으나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영재를 선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객관성 확보 등의 이유로 학업성취도, 지능과 같은 지적능력을 중심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영재의 성취는 지적능력 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지적능력만으로 영재의 성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능보다는 오히려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또는 성취동기와 성취욕구와 같은 요인들이 미래의 성공적인 성취에 큰 영향을 끼친다(김홍원 외, 2003).

영재성의 발현 과정에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 보인다. 비록 영재성이 후천적으로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태어나고 자란 가정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가정환경은 그 부모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정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영재교육원의 초등 영재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높은 성취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 요소를 자아존중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하였다. 가정환경 중 영재교육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반 학생의 부모와 비교하고, 그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영재교육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그 부모의 양육태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40명과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16명 총 6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과 지역의 학교를 무선 표집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설문지를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각각 6명을 추출하여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 1) 분석 도구

##### (1) 자아존중감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Coopersmith와 Pope(1967), Mchaleale과 Ch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하위척도의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평가에 근거하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 등을 측정하는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4개 영역 이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총 16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1월 설문지의 신뢰도와 사전 연구를 위하여 S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4~6학년 85명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전체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나 요인별 신뢰도에서 낮게 나온 항목이

있어 항목별 문항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집단에 따라 신뢰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낮게 나온 요인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적용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한 설문지는 S교육대학교 과학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119명과 서울특별시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255명, 총 374명의 영재교육대상자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의 일반 학생 387명에게 투입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8이었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의미 있는 차이점을 확인한 후 각 집단에서 6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통계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부모 양육태도 중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

연구 자료는 i-STATistics를 사용하여 Cronbach  $\alpha$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양육태도 비교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 Way Analysis Of Variation)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내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판단 수준은 95% ( $p < 0.05$ ), 99% ( $p < 0.01$ ), 99.9% ( $p < 0.001$ )의 세 가지로 알아보았다.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

#### 1)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성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간에 자아

존중감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성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p < .05$ ). 영재교육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경우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학년별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전 학년에 걸쳐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간에 자아존중감이 모든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년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 $p < .01$ )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 $p < .05$ )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3)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면담 조사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성취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 때에도 영재교육대상자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부터 찾았으며 실수라고 말하였다.

영재교육대상자 B: 음..수학, 이번, 오늘요. 수학 시험을 쳤는데, 어이없게도 실수를 했어요. 여섯 개인데 다섯 개로 써가지고. 그때 엄청 후회됐어요.

영재교육대상자 C: 되게 쉬운 문제인데 검산을 한번 안 해가지고 틀렸을 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재교육대상자 D: 시험을 봤는데 틀린 게 다 실수였을 때요.

일반 학생 G: 애들이랑 싸운 적이 있는데, 싸우다가 혼났어요. -중략- 태권도 다니는데 8시 반 부나 그런게 있어요. 하룻동안 7시 부만 나오래요. 그런데 8시 반에 연습하러 나가서 되게 혼났어요.

일반 학생 I: 우리 엄마, 아빠가 동생말만 들어주시

고 -중략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거 아닌데 저만 혼내시고 그럴 때요.

일반 학생 K: 엄마 몰래 무슨 일 저질렀을 때? -중략- 말썹피우거나 뭐 그럴 때.

본 연구에서 영재교육대상자가 일반 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교육대상자와 부모의 성취기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보아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충족시키되 그 적절한 수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실수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다짐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육대상자가 일반 학생에 비해 내적 통제성이 더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재교육에서는 이들의 성취지향성과 내적 통제성을 알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과업에 실패를 반복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쉬우므로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 1)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성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 분석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간에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통제 영역( $p < .01$ )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유의수준은  $p < .001$ 로 나타났다.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 학생에 비해 부모가 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높은 기대를 가지고 격려하며 매사에 이유를 중시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모두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버지가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p < .01$ ) 보이며 합리적( $p < .001$ )으로 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 역시 아들보다 딸에게 더 자율적이며 합리적( $p < .01$ )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2)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학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를 이원분산 분석 결과, 성별과 마찬가지로 4, 5, 6학년 모두 영재교육대상자가 일반 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단, 다른 영역에 비해 어머니의 자율-통제 영역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으나 유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는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에서 대부분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모두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질적 후속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영재교육대상자가 일반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의 부모 양육태도가 실제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상관계수는 .608이고,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관계수는 .605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 영역별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431~.608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어느 영역도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내 영역별 상관분석에서 어느 영역과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 학년, 영재교육대상자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일반 학생 집단은 성비가 거의 동일하였으나 영재교육대상자 집단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2배가 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의 특성상 6학년 학생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양육태도 영역별 설명력

요 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9.161	2.618		14.961***	0.000
부애정-적대	3.17	0.180	0.179	1.756	0.079
부자율-통제	0.784	0.195	0.181	4.028***	0.000
부성취-미성취	0.710	0.168	0.177	4.231***	0.000
부합리-비합리	-0.034	0.189	-0.008	-0.178	0.858
모애정-적대	0.745	0.194	0.170	3.835***	0.000
모자율-통제	0.108	0.193	0.025	0.557	0.577
모성취-미성취	0.402	0.182	0.093	2.209*	0.027
모합리-비합리	0.594	0.189	0.148	3.140**	0.001
영재교육여부	-5.494	0.639	-0.249	-8.598***	0.000

\* $p < .05$ , \*\* $p < .01$ , \*\*\* $p < .001$ .  $R = .715$   $R^2 = .511$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 영재교육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 받는 영향을 통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척도가 갖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 $p < .001$ ).

부모 양육태도의 각 영역이 자아존중감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면담

####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면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었다. 일반 학생이 부모와의 대화가 주로 간단한 용건만 이야기하는 대화가 많은 반면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많았다.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볼 때, 이러한 가정환경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서지은, 이용남, 2008; 오윤선, 2008; 이현석 외, 2009; 장혜순, 강태완, 2005).

앞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재교육대상자들에게 알맞은 교육방식은 평소에 가정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생각

을 주저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영재교육대상자들에게 너무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는 일반 학생의 수업에서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영재교육대상자의 아버지가 일반 학생의 아버지보다 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고 어머니보다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재교육대상자가 일반 학생보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고, 학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두 집단의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영재교육대상자 B: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엄마, 아빠 중 누가 더 이야기 많이 해 주셔?”) 대부분 다 가족끼리 말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만 말을 하지 않아요. -중략- 아빠는 밤에 들어오시고, 밤에 자주 들어오시고, 엄마는 낮에 자주 오시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계세요. 토요일이나 그럴 때는 수다 떨면서 그래요. -중략- (엄마, 아빠의 다른 점) 아빠가 좀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영재교육대상자 C: (“○○가 느끼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점이 있어?”) 네, 어머니는 재밌으시고요, 굉장히. 음...아버지는 공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아빠가 자주 가르쳐 주셔, 공부를?”) 네. 인문이던지 뭐 그런, 제가 궁금한 걸 여쭙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영재교육대상자 D: (“부모님께 제일 자주 듣는 말은?”)음..뭐 하면..잘했다고..(“엄마가 그러셔, 아빠가 그러셔?”) 아빠가요. (“엄마는?”) 엄마도 그러시는데 아빠가 더 그러세요. 해보라고 그러시고.

일반 학생 H: (“아빠랑 주로 무슨 이야기 해?”) 삼형제..드라마 삼형제 뭐 그런 이야기..

일반 학생 J: (부모 중 어느 쪽이 더 편하지?) 엄마요. 아빠는 매일, 제가 집에서 놀고 싶는데 매일 산에 같이 가라고 하고,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일반 학생 L: (“아빠랑 주로 무슨 이야기 해?”) 이야기 안 해요. (“왜 이야기길 안해?”) 아빠가 밤에 들어와서요.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취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나온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지 때문일 것이다.

영재교육대상자가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때,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 자본까지 누릴 수 있는 가정환경이 학생 간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일반 학생의 교육은 물론 영재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 3) 자녀의 성취를 돕는 방법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 모두 부모가 학업과 성적을 중시한다고 느끼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위해 학업을 돕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났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 학생의 부모보다 심리적 및 행동으로 과업을 적극 돕고 있으며, 특히 영재교육대상자의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율-통제 영역이 집단별 의미 있는 차이를 갖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기도 하다.

영재교육대상자 B: (“숙제 안 했을때 엄마가 뭐라

그러셔?”) “미리 하지 그랬어” 하구요. 학교 숙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급히 해야 되니까 차를 태워주신다고 하면서 차 안에서 하라 그래요. -중략- (학원이야기 후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네 가끔씩. 숙제 몰래 안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엄마는 아셔? 그런거?”) 가끔 모르실 때도 있는데요, 들킬 때가 더 많아요.(웃음) (“들킬 때는 뭐라고 해?”) 들킬 때는, 엄마가 근데 진짜 이해를 할 때는요, 그냥..뭐지..그냥 넘어가 주셔요.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때는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영재교육대상자 E: (숙제 안 할 때) 음..놀고 있으면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 아니면 더 놀 때도 있어?”) 들어가야 돼요. 놀다 들어가면 문 잠귀 버려요.

일반 학생 G: (숙제 안했을 때) 하라고 소리 지르구, (“검사는 안하시고?”) 엄마 아빠 다 직장 다니셔서.. 전화로 물어봐요. -중략- (안 듣고 싶은 말) 늦게 숙제 하면 자래요. 11시 반에 새벽쯤에 숙제하면 자래요.

일반 학생 H: (아빠는) 빨리 숙제하고 자라고...(엄마는) 그냥 빨리 자라고..

일반 학생 J: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략- 숙제하고 공부하라고.(“숙제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셔?”) 엄마가 어떨 때 알림장을 보세요. (“밤늦게 숙제한 적 있어?”) 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가 회사에서 늦게 와가지고 숙제했는지 모르세요.

## V. 결론 및 제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부모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 학생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즉,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 학생에 비해 성취지향적이며 내적 통제성을 지닌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며 이러한 점이 자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집단 모두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지만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년에 따른 교육심리학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 모든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 학생의 부모보다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를 강조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특히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성취 과정을 중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 집단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서지은, 이용남, 2008; 오윤선, 2008; 이현석 외, 2009; 장해순, 강태완, 2005),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는 영재교육대상자의 특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련성은 하위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장 관련이 깊으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이외의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율을 중시하고 성취를 강조하는 태도가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성취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태도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합리적인 태도와 어머니의 자녀 자율을 강조하는 태도는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영역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크므로 부모교육에서 이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영재성의 발현 시기가 학생마다 다르고 성취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교 이후의 영재성과 성취에 대한 연구가 뒤

따른다면 영재교육대상자의 특성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김홍원, 윤초희, 윤여홍, 김현철(2003). 초등 영재학생의 지적·정의적 행동 특성 및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안영(2006).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 대한민국 국회(2008). 영재교육진흥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연, 한기순(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법제처(2000). 영재교육진흥법.
- 법제처(200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 서혜애(2002). 중등과학 영재 판별·선발의 실제,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교사 연수 자료, 서울시 중부교육청
- 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노우트, 서울: 행동과학연구원.
- 오윤선(200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49.
- 윤여홍(역). (2009). 영재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2004). 지적으로 우수한 초등영재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2), 177-196.
- 이신동(2002). 영재와 평재 부모의 배경과 양육특성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2), 29-45.
- 이재신(1996). 초·중등학교의 영재판별체제 구안을 위한 기초적 연구. 영재교육연구, 6(1), 13-29.
- 이재연, 민진숙(1998). 영재의 또래 지위와 자기지각. 아동연구, 12(1), 25-41.
- 이현석, 최은희, 황미영(2009).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 대 학생의 대인관계, 갈등해소양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2), 1-22.
- 이해명(200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57-58.
- 장해순, 강태완(2005). 스피치교육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49(1), 163-191.
- 조석희(1996). 과학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방안. 과학 영재 교육의 발전적 지향에 관한 세미나 발표 논문, pp.9-36. 서울: 한성과학고등학교.
- 최경숙(2006). 아동발달심리학. 서울:교문사.
-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 최호성, 이화국, 이근현(2000). 과학영재의 판별 및 선발, 전국과학영재교육센터협의회 정책연구보고서.
- Renzulli, G.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a, 11, 180.